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옛신앙

Old-time Faith
www.oldfaith.net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증거했던 신앙, 오직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04072 서울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 합정동교회 김효성 목사, ☎ 02-334-8291, E-mail: oldfaith@hjd.net

주일오전설교 | 자녀들아, 아버지들아

에베소서 6:1-4,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라. 또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가정은 사회의 기본 단위이다. 인류는 첫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서 나왔다. 부모 없는 사람은 없다. 사정이 있어서 부모가 자녀를 낳았으나 키우지 못하고 고아원 같은 곳에 맡긴 경우가 있을 뿐이다. 인간 윤리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 가정은 사람의 인격 훈련장이다. 이 시간 가정 윤리에 대한 성경 교훈을 복습해보자.

가정의 윤리적 생활은 부부의 바른 관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5:22-25에 교훈되어 있다. 거기에 보면, 아내들은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되 교회가 주 예수께 하듯이 해야 하며,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주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님과 같이 해야 한다고 교훈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도 문제이지만, 남편에게 복종치 않는 아내도 문제이다. 부부는 성경의 교훈대로 복종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오늘 본문은 자녀들과 부모들의 의무에 대해 교훈한다. 먼저 자녀들은 자기들을 낳으신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한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할 이유를 보인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할 이유는 주의 명령이기 때문이라는 뜻이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제5계명에서 부모 공경에 대해 명하시기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고 하셨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부모 공경과 순종의 한계를 보이는 뜻도 있다고 본다. 즉,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되 주의 계명 안에서 해야 한다는 뜻이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죄 짓는 것들이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들 외에는 모든 일에 있어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3:20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고 말한다.

잠언 1:7-9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어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이야, 네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네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요 네 목의 금사슬이니라”고 말한다. 자녀들은 부모의 경건한 교훈을 잘 들어야 한다(잠 23:22; 13:1).

제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한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를 무시하거나 거역하지 않는 것을 내포한다. 자녀들은 그들을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를 존중하고 존경해야 한다.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무관심하거나 그들을 방치하거나 방관해서는 안 된다. 또 부모님을 구박하거나 저주하거나 구타하거나 살해하는 것은 큰 악이다(출 21:15, 17).

자녀가 부모보다 좀더 배웠다고 부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부모들은 옛날에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혹은 여자는 많이 공부시킬 필요가 없다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기 자녀들만큼은 대학까지라도 공부시켜 보려고 애썼다. 부모는 돈 버는 기계가 아니다. 부모는 자기 행복을 뒷전에 두고 자녀들을 위해 희생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들이 아니다. 자녀 교육시킨다고 돈 많이 쓴 자녀가 부모에게 더 효도하지 않는다는 말은 참으로 슬픈 이야기다.

자녀들은 그들의 부모를 기쁘시게 해야 한다(잠 10:1; 23:25). 또 자녀들은 부모에게 평생 보답해야 한다. 디모데전서 5:4,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본문은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의무도 교훈한다.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녀 교

육에 대해 명하셨다(신 6:4-9). 모든 계명들 중에 첫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한다. 또 그뿐 아니라, 이 계명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야 한다. 자녀 교육은 부모에게 주어진 첫 번째 의무이다.

잠언 22:6,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은 성경에 교훈된 인생의 정로를 말한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부모들에게 주신 매우 중요한 의무이다.

본문 에베소서 6:4는 세 가지 내용을 말한다. 첫째로, 자녀 교육의 책임은 아버지들에게 있다. “아버지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 교육의 책임은 국가에 있지 않다. 학교에도 있지 않다. 심지어 교회에 있는 것도 아니다. 자녀 교육의 책임은 부모에게, 특히 아버지들에게 있다. 아버지들은 이 일에 대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일에 대해 공동적 책임을 느끼며 올바른 자녀 교육에 힘써야 한다. 부모에게 자녀들은 귀한 보배이지만, 그만큼 부모의 책임이 무거움을 알아야 한다.

둘째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한다. 골로새서 3:21, “아버지야, 너희 자녀를 격노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녀들을 훈계할 때 부모는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또 인격적이어야 한다. 자녀들이 노하게 되는 것은 정당성이 없는 훈계, 무리하고 비인격적인 훈계나 체벌을 할 때일 것이다. 그것은 교육의 역효과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자녀를 교훈할 때 성급하게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정당성을 가지고 해야 하며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해야 한다.

셋째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 ‘주의 교양과 훈계’는 성경에 있다. 그러므로 바른 자녀 교육은 성경에 근거한 교육이어야 한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규범일 뿐 아니라, 자녀 교육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책, 즉 자녀 교육의 교과서이기도 하다. 성경의 교훈의 요점은 경건과 도덕성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경건과 도덕성은 모든 성도가 힘써야 할 내용이다. 그러므로 부모는 성경의 요점인 경건과 도덕성으로 먼저

자신을 가르치며 경건과 도덕성을 실천하면서 자기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쳐야 한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들에게 먼저 경건한 생활을 가르쳐야 한다. 경건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을 말한다.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불경건이요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경건이다. 사람의 일들 중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하고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로 온종일 거룩하게 지키는 것도 가르쳐야 하고 교회에서의 공예배뿐 아니라, 가정 예배 드리는 것도 가르쳐야 하고, 또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야 하고 또 소득의 온전한 실 일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가르쳐야 한다.

또 부모는 자녀들에게 도덕성을 가르쳐야 한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하는 것에 대해 가르쳐야 하고 윗사람에게 공손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가르쳐야 하고, 또 남을 죽이는 일이 악한 일이며 남을 미워하거나 욕하거나 치는 일도 악한 일임을 가르쳐야 한다. 또 사람이 결혼하여 부부가 되기 전에 이성간이나 동성간에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 악한 일이며 자기의 몸을 자기 자신이 지켜야 하고 이성친구와 단둘이 있는 것을 조심하고 동성애도 죄악임을 가르치고 또 오늘날 만연한 인터넷 음란물을 접촉치 말 것을 가르쳐야 한다. 또 남의 돈이나 물건에 함부로 손 대지 말아야 함을 가르쳐야 하며 또 거짓말하는 것이 악한 일이며 또 남의 것을 탐하는 것이 악한 일임을 가르쳐야 한다. 또 모든 악이 하나님 앞에서 죄이며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없고 벌을 받아야 함을 가르쳐야 한다.

이런 점들에 더하여 성경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체벌이 필요함을 말한다. 사람은 미련해서 체벌이 효과가 있다. 어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징계하시지만, 아이들에게는 부모에게 그 일이 명령되어 있다. 잠언 13:24, “초달을 차마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일찍부터, 때가 늦지 않게, 부지런히] 징계하느니라.” 잠언 22:15,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었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잠언 23:13-14,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지옥]에서 구원하리라.”

성경은 방탕하고 불순종하는 아들에 대한 엄한 처

별도 가르쳤다. 신명기 21:18-21,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의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바른 자녀 교육을 해서 자녀가 경건하고 도덕성 있는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은 그에게 지혜를 주고 그로 복을 얻고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할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여 자녀를 불경건과 죄 가운데 버려두면 그는 회를 당하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하지 못한다.

우리는 가정들이 복되기를 원한다. 부부는 자기 의무를 다하여 아내는 주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하고 남편은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한다. 부모를 무시하거나 방치하거나 구박하지 말고 기쁘게 하고 보답해야 한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여 그들로 하여금 경건하고 도덕성이 있는 좋은 인격자가 되게 해야 한다.

주일오후설교 **나실인의 규제**

1-21절은 나실인의 규제이다. ‘나실’이라는 원어(나지르)는 ‘[하나님께] 바쳐진 자, 헌신된 자, 성별된 자’라는 뜻이다.

[민수기 6:1-8]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나실인 서약을 하는 자들은 세 가지를 금해야 했다. 첫째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했다. 그것은 나실인이 술취하지 말고 깨어 근신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본다. 둘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했다. 그것은 외모 치장에 대한 관심을 버리라는 뜻이라고 본다. 셋째는 그 부모와 형제 자매의 시체라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했다. 그것은 대제사장에게 주신 명령과 같이(레 21:11) 세상의 가족관계라도 초월하고 오직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라는 뜻이라고 본다.

[9-12절] 누가 홀연히 그 곁에서 죽어서

나실인 서원을 한 사람이 갑자기 죽은 시체로 자신을 더럽히게 되었을 때, 그는 제8일에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로 자신을 정결케 하고 처음부터 다시 자신

을 성별시켜야 하였다.

[13-21절]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 . .

본문은 나실인 서원을 한 사람이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찰 때에 할 규제이다. 그는 번제, 속죄제, 화목제, 소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했다. 구약의 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실 속죄의 뜻과 함께 완전한 헌신과 순종, 교제의 회복, 감사의 뜻이 있었다고 본다. 나실인 서원을 한 자는 이 후에도 더욱 하나님께 헌신하고 교제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이다. 요제는 하나님께 드리고 받는 뜻이 있다.

[22-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본문은 제사장의 축도 즉 축복 기도의 말씀이다. ‘축복’은 ‘복을 빈다’는 뜻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복을 빌지 않으시고 그 자신이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시여, 축복하옵소서”라는 표현은 옳지 않고 “하나님이시여, 복을 주옵소서”라고 해야 한다.

이론과 그 이들을 곧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지손을 위해 축복 기도를 올려야 했다. 제사장의 축도는 세 가지 내용이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기원했다. ‘복’은 좋은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만복의 근원이시다. 각양의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또 온다. 야고보서 1:17,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질병과 가난과 각종 재앙과 죽음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것은 큰 복이다. 이 세상에는 죄가 많고 우리의 마음은 악하여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 쉽다. 또 이 세상에는 질병들, 물질적 궁핍, 기근, 실직과 부도와 파산 등이 있고, 전쟁과 지진과 각종 사고들이 있고 죽음의 위협이 있다.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므로 시편 121:1-8은 이렇게 증거하였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줄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줄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들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시리로다. 여호

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제사장의 축도의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 얼굴로 그들에게 비추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기원했다. 이것은 신약성경의 사도들의 서신들에서 처음 부분과 마치는 부분에서 반복하여 언급된 내용이기도 하다.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호의와 사랑을 가리킨다. 성경에서 은혜라는 말은 사랑, 긍휼, 자비와 같은 뜻이다.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많으신 분이시다. 그는 모세에게 자신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는 하나님’으로 계시하셨다(출 34:4-7). 하나님의 구원적 사랑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이다. 자기의 행위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우리를 죄와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하셨다. 또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 자들을 끝까지 지키신다(롬 8:30).

제사장의 축도의 세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그들에게로 향하여 드시어 평안을 주시기를 기원하였다. 이 내용도 사도들의 서신들의 시작 부분에 나오는 기원의 내용이다. 성경에서 ‘평안’이라는 말은 매우 포괄적인 뜻을 가진다. 우리말의 ‘안녕’과 같이, 그것은 마음의 평안, 몸의 건강, 물질적 안정, 사회적 평안을 포함한다.

주 예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고(마 11:28), 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셨다(요 14:27).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3:16에서,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말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 몸의 건강을 주시고, 물질적 복과 안정 등의 의식주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또 그는 우리에게 사회적 평안도 주실 수 있다. 천재지변과 경제공황과 사회적 소요와 전쟁을 막아주신다.

본문 2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이렇게 축도할 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셨다. 제사장의 축도에는 효력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

에 응답하여 복을 주실 것이다.

본장은 **나실인의 규례**와 제사장의 축도이다. 나실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다고 본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거룩하고 완전하게 드러진 나실인이셨다(엡 5:2). 나실인은 또한 신약 성도들, 특히 신약교회의 봉사자들을 예표하였다고 본다. 신약 성도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힘과 재능과 돈과 생명까지 드리는 자들이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에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교훈하였다(롬 12:1). 신약성도는 나실인 서원자와 같이 세 가지를 조심해야 한다. **첫째로, 우리는 술을 금해야 한다.** 술취함은 실수와 범죄의 원인이 된다. 우리는 맑은 정신으로 생활해야 한다(벧전 1:13). 특히, 교회의 목사들과 장로들과 집사들은 술을 멀리해야 한다(딤후 3:2-3, 8). **둘째로, 우리는 외모의 치장에 관심을 두지 말아야 한다.** 디모데전서 2:9-10, “여자들도 아담했던정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땀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3:3-4,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것은 남녀 성도에게 다 적용된다. **셋째로, 봉사자들은 가족관계, 넓게는 세상 일을 초월하는 정신을 가져야 한다.** 주의 종들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기의 목숨까지 미워해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가 될 수 있다(눅 14:26). 바울도 디모데에게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고 말했다(딤후 2:4).

제사장의 축도는 복된 내용이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만복의 근원이다. 그는 그를 찾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좋아하고 사모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세 가지의 복을 기원하게 하셨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키심의 복을 사모하자.** 시험과 환난이 많은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목자이시다. **둘째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자.**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그 은혜로 성화를 이룬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사모하자.** 그것은 마음의 평안뿐 아니라, 몸의 건강과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평안을 포함한다. 우리는 서로 축복하며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며 누리자.

★ 스마트폰에서 설교 듣기: 인터넷 검색창에 hjdc.net 입력.